

노무현 대통령 자전 구술

1. 구술일자: 2001년 10월 26일
2. 구술장소: 서울 여의도 금강빌딩 자치경영연구원 사무실
3. 구술분량: 23분 17초 / 일부 공개
4. 주요내용: 노사모의 탄생과 신주류

나한테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있다. 나는 행복한 정치인이다. 그게 ‘노사모’에 대한 내 느낌입니다. ‘노사모’가 뭐냐.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람 모으기를 좋아합니다. 사람 모으기를 좋아하고, 사람을 모아놓고 설득하려고 하고, 사람 모아놓고 ‘와, 나 사람 모았다’ 이렇게. 그래서 언론에서 항상 세 과시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걸 나는 좀 안 좋아하거든요. 나는 좀 안 좋아하는 게 내가 설득하고 싶은 자리, 말하고 싶은 자리에 사람 모인 것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가지고 만나는 자리에 사람이 많을수록 좋고, 많을수록 말을 잘 해요 제가. 많을수록 말을 잘 하고 힘이 생기고. 듣는 사람도 힘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좋아하긴 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게 있어요. 몇 시간을 달려가서 5분 축사하고 내려오라는 거. 5분 안에는 메시지가 없어요. 메시지 없이 결국 얼굴 하나로 그 자리를 빛내준다고 하는데, 실제 거기 모인 사람들은 별로 반갑게 생각지 않는 불청객 비슷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도 자기는 무슨 큰 대접이나 받는 것처럼 도취해가지고 가서 윗자리에 앉았다가 5분 축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개만 받고 와야 되는 자리는 [싫습니다]. 내가 분명히 그 자리에 뭔가 그 자체가 의미를 갖는 경우, 예를 들면 제 부산 후원회 거기에 오신 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내가 간곡히 와달라고 하였던 그런 경우 소개만 되더라도 아주 중요한 자리이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얼굴 내미는 자리, 그것도 두 가지[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정치하는 사람이 뭔가 본능적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모임이 있는 데 가서 얼굴이라도 한 번 내지 않으면 불안한 [거죠]. 사람이 많은데 다른 사람은 가서 얼굴 한 번 스치는데, 나는 얼굴 한 번 못 스치면 손해 보는가 싶은 불안감 같은 게 있는데 난 그 점은 안한다. 메시지가 있을 때, 뜻이 있을 때 가는 이외에는 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쪽이거든요. [다른] 한쪽은 주최 측에서 공연히 이름난 정치인들을 자꾸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불러가지고 뭔가 주최 측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경우에는 정말, 아까 말했듯이 특별한 뜻이 있는 경우 이외

에는 안합니다. 말이 갈팡질팡 했습니다만 대개 이런 것(모임)들. 근데 이상하게도, 군소리 하나 집어넣으면 이상하게도 만나면 모두가 정치인들 욕을 퍼부으면서 그런 행사할 땐 똑(꼭) 정치인을 양념으로 끼울려고 하는 심리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결국 난 거[기가]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거기에 한 번 가기 위해서 내가 소비해야 되는 시간은 가고 오고 보태면 보통 시내에서도 벌써 두 시간, 두세 시간 잡아버려야 되고 [해서] 가급적 피합니다. 모임에 대해서 대략 이런 생각들을 정리를 해놓고 있죠. 그래서 얼굴 내기는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행사를 할 때도 행사의 목적을 정확하게, 행사의 취지와 의미를 정확하게 해서 거기에 맞도록 하는 것이지 몇 천 명 모아놓고 세를 내는(과시하는) 것은 저는 그건 별로[예요]. 많이 모이는 모임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컨셉(concept)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모임을 기획할 때마다 참모들한테 필요한 적정 규모를 항상 얘기해서 명실상부하게 치러야 된다. 의미에 알맞게 치르도록 항상 내가 단속을 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얘기를 별로 안합니다. 앞으로는 미디어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단체들을 흑시 띄우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진 지금 그렇게 원칙적으로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있고 껍데기만 있는 모임들 이런 건 잘 안하는 편이지요. 그래서 그 흔한 산악회도 저는 하나 없지요 사실은. 다만 지난번 지구당 선거 마치고 난 뒤에 지구당에 산악회 하나 있는 거 이외에는, 그 흔한 산악회도 없는 편이지요. 산행을 하더라도 컨셉을 정해서 하고.

한 마디로 말해서 좀 그런 편이지만 그래도 나도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지지집단이란 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정치인들한테는 없는 아주 독특한 지지조직이 하나 생겨났어요. 보통 지지조직을 만들려면은, 보통 정치인이 [지지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애를 써서 이렇게 저렇게 끈을 대고 굵어 모아서 이렇게 만드는데. 그야말로, 그야말로 저절로 생긴 정치조직, 지지집단이 하나 생겼어요. 지지모임이 하나 생겼으니 아주 굉장히 고맙고 자랑스럽지요. 게다가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면, 특히 청년들 활동하는 모습들 보면 우리가 아이들 보고 살갑다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살갑다. 기존의 정치인들이 하는 것하고 달라요. 가장 큰 차이는 오로지 격려할 뿐이지 나한테 생색을 안내요. 모든 정치 조직은 그 사람한테 생색을 내고 싶어 하는데 생색을 내려고 하지를 않고, 무슨 조그만 모임이 있어도 나를 참가하라고 조른다거나 이렇게 해서 내 일정 운영이나 이런 거에 곤란함을 주지도 않고, 돈 내란 소리도 전혀 안하고. 말하자면 비용청구도 전혀 안하고. 획일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룹 그룹에서 전부 아주 다양하고

깜찍한 아이디어들 내갓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도움이 되고 안 되고, 실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검증 안 해봤지만 참, 뭔가 그 가슴에 찡하니 와 닿는 고마움 이런 것을 느끼지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야, 이거 정치 꼭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순간순간 들 때도 그 사람들 생각하면 ‘이거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노사모가] 생긴 것은 [2000년] 4·13 총선에서 제가 낙선했지요. 낙선하고 난 뒤에 내 갓고 있던 노하우 사이트에, 홈페이지에 하나 둘 글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이게 수백 명, 수백 명 수준인가? 글이 수백 통 올라오고 조회가 수천 건 이렇게 몰리기 시작하더니, 들락날락 하면서 글 잔치가 벌어지더니 그 중에 누군가가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끼리 따로 모이자. 우리 따로 모이자’ 그래 갓고 그렇게 그렇게 똑똑똑 만들어진 게 ‘노사모’ 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6월 6일 날 대전 한남대학교 앞에 조그마한 피씨방에서 모여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그때 한 육칠십 명 모였나? 가보니까 뭐 학생, 처녀, 총각에서부터 30대 가정주부, 40대 직장인, 아이들 데리고 [나왔어요]. 기세등등한 투사들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시민. 뭔가 관심 있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인터넷에서도 토론 같은 데 부지런히 참가하고, 가끔 자기 의견을 글로 쓰거나 아니라도 유심히 살피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얼굴에 쓰여 있어요, 얼굴에. 남한테 해코지 절대 안하는, 남한테 부담주거나 해코지 같은 거 절대 할 줄 모르고, 여하튼 자기 할 일 착실하게 하는 좀 여린 사람들. 그러면서도 강한 주장은 또 갓고 있으면서도 심성들이 여린 사람. 주장은 뚜렷하되 심성은 좀 여린 이런 사람들인 거죠. 하여튼 남한테 조금이라도 신세를 질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모였지.

그 뒤에 다음 모임이, ‘광날모’ 라는 모임이 이제 또 있었어요. ‘광날모’ 그 모임이 뭔 뜻인가 그랬더니 여름 방학을 기해서 [부산]광안리에서 날 새는 모임이 ‘광날모’ 래요.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옛날에 내 선거 때 와서 자원봉사 해줬던 사람들도 가끔은 있어요. 있는데 그때, 여하튼 그때도 분위기가 [대전하고] 같고. 내가 보기엔 나를 불러놓고 질문하고, 세워놓고, 카페에 세워놓고 질문하고 무슨 행사를 진행하면서 나한테 좀 짓궂은 질문이나 짓궂은 요구를 하고 하는데. 모두 서투르고 어색하게 해 가는데 모두들 또, 내가 보기엔 진짜 서투르고 어색하고 썰렁한데 그 사람들은 다 집중해서 함께 웃고 떠들고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여고 3학년생이 하나 왔었어요. ‘여기 왜 왔냐’ 고 나무라고 야단을 칠 수도 없고. ‘이 친구가 지금 여기 올 놈이 아닌데’ 그 부모들 얼굴이 가만히 생각나면서 내가 마치 무슨 남의 집, 남의 애들 꼬셔내가지고 나쁜 짓이나 시키는 거 같은 그런 미안함이나 불안감[이 드는] 그런 친구 하나. 명계남 씨가 그날 와서 젊은 친

구들이 들어다가 물에 빠뜨려버리는 바람에 발을 빼쳐가지고. 그때 명계남 씨가 와서 회장이 됐지요 아마? 회장 되고, 발 빼치고 그래가지고 작대기 짚고 땡기고, 그때 합류하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아주 규모도 갖추고, 지부도 많아지고. 그때 내가 걱정했던 여고생은 성균관대학에 입학해가지고 안심을 했는데 ‘아유 너그 엄마한테 내가 맞아 죽을 뻔 했는데, 매 맞을 뻔 했는데 다행히 대학 들어가서 이제 안심이다’ 했는데 대학가선 또다시 무슨, 또 뭐 만든다더라? 말하자면 대학생 그룹을 만들어요. 노사모 대학생 그룹을 만드는데 실제 표에 얼마나 도움이 될 런지 그런 것을 떠나서 정치인으로선 참 행복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참 행복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새로운 정치 문화가 될 수 있을까?’ 아, 자랑스럽지요. 나만 있으니까. 나만 가진 자산이라 생각하면 항상 좀 으쓱해지죠, 으쓱해지고. 그러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건 ‘이게 어떤 새로운 정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정치 운동의 모델, 내가 하는 정치 운동이 아니라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정치 운동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까?’ 나로서도 호기심이 생기는, 기대와 호기심 같은 것이 생기는 모임이에요.

구체적으로 무슨 도움을 받냐. 분명히 도움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조선일보하고 싸움을 했잖아요. 인터넷 매체에서라도 확고하게 내 편이 있다는 거. 그리고 서로 정보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네트워크(network)이 확실하게 형성돼있다는 거, 이 정도의? 아까 내 얘기 했는데 그럭저럭 그렇게 모여서 지금까지 한 천 명 수준에서 이렇게 있더니, 자기들끼리 회원 배가 운동을 벌이더니 지금 한 4천8백 명 왔다 네요. 이 정도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거죠, 네트워크. 네트워크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자신감을 주고 옛날에 조선일보하고 각을 세울 때도 ‘내 뒤에 후원자들이 [있다]. 지원세력이 있다’ 자꾸만 노사모 생각이 좀 나고, 은근히 든든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실제로 나한테 대한 좋은 정보가 있으면 적어도 이 수준에선 싹 돌고, 이 사람들이 정보 퍼 옮기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인터넷 사이트에 종횡무진 휘젓고 다니는.

또 하나 좋은 건 욱 싸움엔 절대 안 끼어들이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아주 냉정한 논리[로], 모든 토론을 쿨다운(cool down) 시켜가면서, 아주 냉정하고 차분하게 아니면 안 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걸고 어디 가서 무례한 짓을 해가지고 욱 먹을 까봐 우려할 일, 걱정할 일이 없어요. 아주 냉정하게, 상대방이 욱을 해도 아주 점잖게 응수하고. 마주 욱을 안 해요. 아주 온건하고 품위 있게, 하여튼 예의 바르게 마주 싸우지를 않고 그렇게 설득하고 나무래고 이렇게 합니다.

제일 내가 미안한 것은 자주 보지를 못하고. 그러다보니 지방에 한 번씩 출장을 가

면 플랜카드를 들고 어떤 땐 톨게이트 같은 데 마중을 나오기도 하고, 행사장에 나오기도 하는데 보통의 눈으로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죠. 5~6명, 플랜카드도 조그마한 거 하나 딱 들고 있으니 초라하게 [보이죠]. 그 전체 다른 행사나 이런 데 한쪽 구석에 조그마하게 이렇게 보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나와 주는 것이 내가 좀 미안하게 느껴져서 그럴 뿐이지 하여튼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나한테 비취요. 정치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서투른 사람들의 그 서투른 모습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되는 거지요. 제일 반가운 사람들. 그리고 제일 미안한 사람들. 근데 즈그들도 그래요. 많이 못 나와서 미안하다나? 하 나, 웃기는 놈들. 그래, 마 나오지 마라. 쪽팔린다. 아니 보기에 따라 열 몇 명 나와 있으면 남들 보기에 노무현 광주 후원자가 열 몇 명밖에 안 돼 보이잖아요. 오해 받을 소지가 얼마든지 있거든. 무슨 차기 대권 워겨냥한다는 놈이 지지자라고 나온 게 애들 여남은 명 나왔다고, 거 얼마나 웃기겠어요. 순천 가도 딱 버티고 있고, 여수 가도 딱 버티고 있고, 광주 가면 또 탁 나오고 이러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나한테 그게 제일, 아주, 썩 소중하고 또 으쓱해지는 그런 [거죠]. 근데 그 사람들 내가 얼굴을 아직 잘 못 알아보겠어. 그게 미안해요. 얼굴 못 알아보다는 게 마치 죄인의 느낌.

그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모여서 공식적으로 가끔 한 번씩 구호를 내걸 때가 있어요. 그 구호에는 반드시 동서화합이 들어가요. ‘노무현과 함께 동서화합’ 그저 모인 사람들은 아닌 거 같아요. ‘동서화합하자’ 동서화합이란 목표와 내가 부산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동급, 그와 유사한 정치적 행위[가 아닌가]. 그 다음에 늘 그렇게 내가 [선거에서] 물 먹고 다니니까 그런데 대한 느낌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젊은 사람, 고학력 이쪽에 제 지지자가 많습니다. 나는 저학력인데 내보다 학력이 높은 사람한테 제가 [지지율이] 높고, 학력이 낮을수록 제가 좀 [낮습니다]. 여론조사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조금 의아스러운 게 있어요. 나는 그동안에 블루칼라(blue collar, 생산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도와줬다고 얘기할 수 있지요. 블루칼라들, 그 중에서도 학력이 낮은 블루칼라들일수록 내 지지는 낮아요. 저는 30대·화이트칼라(white collar, 사무직 노동자)·고학력 그렇게 사회 의식이 가장 발달된 사람들에게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람한테 지지가 높은 거예요. 말하자면 논리적인 사고 작용을 개입한. 정치인을 볼 때, 단순 감각으로 보지 않고 논리적 사고 작용을 거쳐서 판단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지지가] 높은 겁니다.

‘노사모’가 처음 발족할 때 핵심들은 수준이 어떨든 간에 사이버 스페이스(cyber space)의 논객들입니다. 논객들이 주축이 되었죠. 지금 사이버 매체가 뉴미디어

(new media)잖습니까? 여기에서 노는 사람들의 가치 지향이 새로워요. 옛날의 권위주의 시대, 정실주의하고는 다른 어떤 원칙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정의감이라든지 정의의 기준 같은 것과 관계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원칙, 뭔가 원칙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지향들이 다 있다고 봅니다. 룰(rule), 페어(fair)한 게임, 페어플레이(fair play) 이런 것 등등에 관해 지향들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셈이죠. 내가 신주류 얘길 했었는데, 이회창 씨가 주류 얘기를 들고 나오길래 그걸 되받아 치면서 신주류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말했던 신주류는 옛날 우리가 과거의 사회주의 이론에서 말하는 노동자 계급, 이런 계급적 개념이 아니라 사물을 대하고, 사물과 현상에 반응하는 어떤 태도 같은 것을 가지고 [말한 거죠].

사실은 이런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80년대 명동성당의 벅타이 부대와 같은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서 전부 벤처기업에 많이 도전하고, 딱히 벤처기업이든 아니든 간에 하여튼 창의와 아이디어로써 승부하면서 기존의 특혜와 반칙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의 산업화 시대에 통용되어왔던 특권과 정실에 대해서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새로운 윤리를 당연하게 요구하는 지향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경제력에 있어서도 사회에 새로운 문화를 증설할 수 있는 집단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고. 물론 그렇게 직접 사이버 스페이스에 토론하고 다니지 않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사이버 스페이스에 익숙하고 거기에서 직장과 부를 창출해서. 직장을 찾아도 거기 들어가서 찾아요. 어쨌든 거기서 정보를 얻고, 직장을 찾고, 돈을 벌고 그런 사람들이예요. 그래서 한국사회는 사회학적으로 면밀히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신주류군이 우리 사회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